

2022

모두가 함께하는 나눔과 순환의 아름다운 가게

2002



아름다운가게 20년사

01

- 05 모두가 함께하는 나눔과 순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 07 아름다운가게 창립선언문
- 08 지난 20년간의 출발과 성장
- 16 이사장 인사말
- 18 미션과 비전
- 20 아름다운가게 조직구성
- 22 20년간의 기록

02

- 24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 26 물품기부
- 32 그물코와 되살림센터
- 36 아름다운 수거
- 40 재사용 나눔가게
- 46 자원활동

03

- 54 참여를 통한 변화를 만들어온 아름다운 활동
- 56 업사이클링 사업
- 60 아름다운 사회공헌
- 64 현금후원
- 66 나눔장터
- 74 사회적기업센터
- 76 나눔교육
- 78 공익상품

04

- 82 느리더라도 꾸준히 일어나는 변화
- 84 나눔사업

05

- 92 오늘을 있게 한, 한 발앞서간 우리
- 94 재미난버스에서 움직이는가게까지
- 97 생방송 TV 아름다운가게
- 98 대한민국 최초 대안무역
- 100 아름다운 아파트 캠페인
- 101 아름다운 국제회의
- 103 100호점 개점을 위한 자선음악회
- 104 아름다운 캠페인들

06

- 107 아름다운 문화
- 108 아름다운 복지
- 110 아름다운 이름



01

모두가 함께하는 나눔과 순환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아름다운가게 창립선언문
지난 20년간의 출발과 성장
이사장 인사말
미션과 비전
아름다운가게 조직구성
20년간의 기록



아름다운가게 창립선언문

아름다운가게가 꿈꾸는 세상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 수많은 공동체들은
서로를 필요로 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태계의 그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경쟁과 지배와 허영 속에서 스스로를 소모시키고
소중한 관계들을 파괴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모든 생명은 존귀하고 평등하다고 믿으며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작은 물건 하나도 하찮게 보지 않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이라도 다 그 나름의 쓰임새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들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일,
뚝어진 생명의 그물코를 다시 엮는 일,
조용히 낮은 자리에서 이슬비처럼 세상을 적시며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일,
바로 아름다운가게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지난 20년간의 출발과 성장

2002년 아름다운가게의 빛나는 역사가 안국동 작은 알뜰 시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두의 관심 속 시민들과 함께하는 자원재순환과 나눔의 도전을 이어오는 동안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000년대

2001.05
안국동 길거리에서 알뜰시장 개최

2002.04
아름다운재단의 유관기관으로 협력체제 구축



2002

01

2002.10
아름다운가게 1호점(안국점)개점 및 창립총회 개최

2001년 1월 새로운 운동을 모색하기 위해 참여연대 내 대안사회팀을 신설하고 전문적으로 알뜰시장과 상설매장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아름다운재단으로 이사 후 3월, 정식 명칭을 아름다운가게로 확정했습니다.

2003.08
제1회 활동천사캠프 '한 여름의 아름다운 알츠'



2003

02

2003.11
자상최대 벼룩시장 개최 | 나눔장터의 시작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20만 시민참여)

2천여개의 판매팀과 20여만명의 구매고객이 참가한 최대 나눔장터로 서울시와 기업, 기관에서 기증된 물품과 환경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각종 폐기물을 이용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만든 정크 아트 공모전 수상작이 전시되고 각계각층의 인사 및 연예인들의 물품의 경매도 진행되었습니다.



2005

03

2005.09
'위아자 나눔장터 2005' 주관 (서울월드컵경기장)

2006.03
서울국제마라톤 내 기증캠페인 '뷰티플레이스' 시작

달리면서 동시에 기부를 하는 대회로 기부 문화의 확산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마라토너들이 물품을 기부하고 참가비 절반을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06.08
공정무역 첫 번째 커피 제품 '히말라야의 선물' 론칭

2006.
제1회 재활용자선가게 국제회의 개최

'재활용자선가게의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에는 미국, 영국, 일본의 대표적인 재활용자선가게 전문가가 참석하여 각 국가별 활동상황을 소개하고 각 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03.01

아름다운가게 지역매장 1호 광주첨단점 개점

2004.01

제1회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개최

2004.03

독심 아름다운나눔장터 개장

2004.05

만성·희귀난치성 환아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초록산타' 시작

2004.06

SBS 'TV 아름다운가게' 방영 시작

2005.02

용담되살림터(現 서울그물코센터) 새 단장

2005.06

기증물품 인터넷 소핑몰 '아름다운가게 인터파크점' 오픈

온라인 기부장터로 인터파크 이용자들이 자신이 쓰던 중고물품을 인터파크에 내놓고 기부금액 비율을 정하여 물건이 팔릴 때 해당 금액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이용자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판매와 나눔의 보람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7

04

2007.01
업사이클 브랜드 '에코파티메아리' 론칭

2007.05

갠지스강 유역 기후난민 지원사업 '나마스페갠지스' 론칭



05

2007

05
2007.10
아름다운가게 창립 5주년 기념식 및 기념콘서트 개최

2007.10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2007년10월 아름다운가게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상의 기타 사회적가치가 있는 활동을 하는 곳으로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곳의 조항에 따라 환경부문의 재활용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활용하여 나눔과 순환의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특별한 공익사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내는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7.12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최초 매출 100억원 돌파

2008.06
'아름다운카페' 1호 개점, 아름다운가게 1호점 안국점 이전

2008.07
모법인 아름다운재단에서 분리, 독립법인 '아름다운가게'로 재출범
2008년 7월 1일부터 모(母)법인인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에서 분리되어, 비영리 독립법인인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독립법인이 되면서 달라지는 점들은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의 법적, 제도적 책임과 의무가 늘어났다는 것과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법적인 책임 주체로서 온전하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독립법인 출발 당시 '아름다운가게'의 모든 사람들은 2008년 7월 1일자로 '창립 멤버'가 되었습니다. 당시 임원 15명, 명예임원, 운영위원 수백여 명, 간사 1,200여 명, 활동천사 5,000여명, 계약근로자 100여명, 파트너 기업, 기관, 단체 약 2,000여 곳 모두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재창립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07

2009

06
2008.10
국제 대안무역회의 2008 '모두를 위한 대안무역' 개최

07
2009.02
에코파티메아리 뉴욕현대미술관(MoMA) 디자인 스토어 입점



06

2008



08

2009

08
2009.05
정명훈과 서울시향이 함께하는 '아름다운가게 자선음악회' 개최

세계적 지휘자 정명훈과 서울시향의 재능기부를 통해 개최된 이번 자선음악회는 약 3,000여 명의 참여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자선음악회를 통해 아름다운가게 100호점 개봉점이 탄생하였고 아동수익나눔 특화매장이 되어 나눔을 이어갔습니다.



09

2009

09
2009.08
아름다운가게 100호점 개점(개봉점)

2010.05
어린이 음악축제 '작은소리 큰울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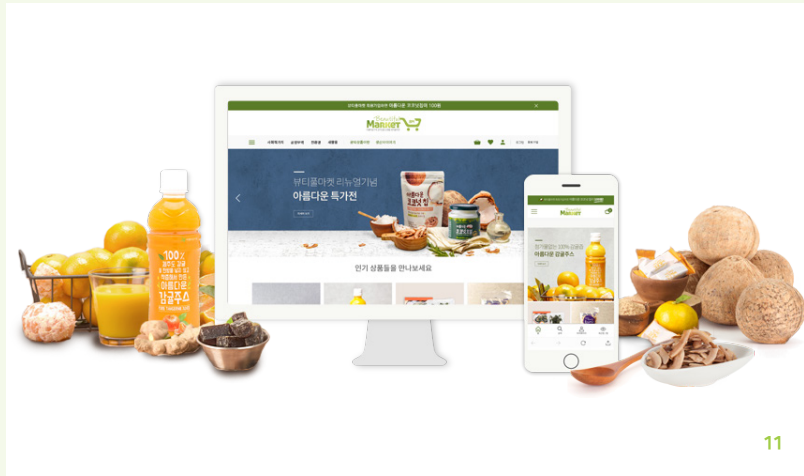


10

2010

10
2010.07
'아름다운도서관 1호' 개관 (네팔 중부 누와코트주 트리솔리 콜로니마을)

2010.09
제 3세계 농민들을 위한 '아름다운학교' 건립 (네팔 칼리파)



11

2011.02
'우리 시대 명사 100인의 희망메시지전' 개최

2011.05
사회적기업가 '뷰티풀펠로우 1기' 선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고자 사회적기업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센터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일상을 바꾸는 것, 사람을 길러내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제2,3의 아름다운가게 찾기는 계속됩니다.

11

2011.07
공익상품 온라인쇼핑몰 '뷰티풀마켓' 오픈

2011

12

2011.10
국제 사회적기업가 컨퍼런스

열악한 여건에서 사회적 기업가들의 꿈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회적기업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세계적 사례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국제회의를 주최하였습니다.

2011.12
아름다운가게 서울본부 성동구 용답사옥으로 이전

2012.03
명사 100인이 전하는 응원메시지 전시회 개최



12

2011



2012

13

2012.09
아름다운가게 해외 첫 매장 LA점 개점

교민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아름다운가게와의 매장개설 방안을 논의하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인 교민들의 적극적인 역할로 개설되었습니다. LA매장의 운영수익금은 국내 매장의 운영방침과 마찬가지로 매장을 중심으로 한 LA지역의 소외계층들에게 지원되었습니다.



14

2012

14, 15

2012.10
아름다운가게 창립 10주년 기념
'아름다운축제'



15

2012



2015

2016.05
가정의달 기념 '보육원퇴소청소년 응원 캠페인' 진행

2016.09
누적 활동시간 1만 시간 돌파 자원활동가 탄생

2016.10
10월 4일, Beautiful 1004Day(천사데이)로 지정

2016.11
한겨레 행복일터 '보람부문' 수상

2016.12
수익나눔액 400억 원 돌파

2003년 7월 '요술램프의 주인공을 찾아라'로 시작된 아름다운가게의 나눔액이 2016년 누적금액 4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연간 평균 약 45억 원을 우리 이웃과 아름다운 나눔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17

2017.03
'아름다운가게 숲' 1호 조성(청담 도로공원)

2013.02
GS SHOP,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약 체결

2013.03
광화문희망나눔장터 개장

2014.01
아름다운커피, 공정무역 전문단체로 법인 분리

2014.03
'제22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옥외부문 수상

2014.04
나눔교육기관 최초 '상반기 서울교육인증기관' 선정

2014.06
사회적기업 창업 교육 프로그램 '2014 사회적기업 창업전문과정' 운영

16

2015.04
에코파티메아리 페어트레이드 제품 뷰티풀웍스 '주트가방' 출시

2013년 4월 24일, 세계의 재봉틀이라 불리는 방글라데시 사바에 엄청난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재난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사회적기업 뷰티풀웍스(Beautiful Works)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방글라데시의 친환경 소재 주트 가방과 소품을 만들어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판매하였습니다.



17

2017



2017.10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18

2017.12
누적 수 자원활동가 13만 명,
누적 활동 시간 800만 돌파

2018.07
'2018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대통령 표창 수상

2019.04
서울시교육청,
'약기기증캠페인' 개최

2019.04
서울특별시,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2019.12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우수파트너' 선정

2020.03
코로나19 위기가정 긴급 생계비 지원
네이버 해피빈에서 진행했던 아름다운가게의
코로나19 모금함 전액, 개인 및 기업 후원금 전액에
아름다운가게의 매장운영 수익금을 더하여 조성된
기금 1억500만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고용
노동부 및 서울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
대상을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18

2020

19

2020.08
섬진강 범람 수해 500가구 구호 생필품 전달

2020.10
보호종료청년 인턴 1기 모집

2020.11
편의점 택배 물품기부 서비스 오픈



19

2020



2021

20

2021.07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진행
폭염, 가뭄, 홍수, 태풍, 한파와 같은 기후변화에 빈번하게 노출되거나 사회적·경제적으로 피해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게 물품 지원(쿨토시, 휴대용 선풍기, 햇빛 차단 모자 등), 심리
정서적 지원(청년 자원봉사 1:1 매칭을 통한 미술 힐링 프로그램), 산업안전 교육 및 상담(노동인권
상담 등)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09
사회적기업가 뷰티풀펠로우 11기 선발

2020.12
가족친화우수단체 선정

2021.2
'변화를 이끄는 이사회' 출간

2021.06
생활 속 탄소저감 '액션투그린' 캠페인 진행
액션투그린 캠페인은 모두가 직면한 기후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나눔과 순환으로 '아름다운 세상'
을 지키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나눔, 생활 속 탄소 저감 실천, 모바일 서비스 확대,
친환경 매장 운영, 환경 교육 총 5개의 친환경
액션을 제시하며, 아름다운가게의 생태적·친환
경적 역할을 보다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21

2021

21

21.10
친구프로젝트 진행

GS SHOP과 함께 친환경으로 지구 구하기라는친구 프로젝트를 오픈하였습니다. 건강한 지구, 깨끗한
환경을 위한 미션을 수행하는 환경 캠페인으로 1,000명의 시민 캠페이너를 모집하여 입지 않은
옷을 기부받아 업사이클링에 참여하고 일상에서 친환경 미션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기부된 제품
으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 미션 리워드 상품으로 제공하고, 기타 기부된 의류는 연말 소외 이웃에게
전달하였습니다.

22

22.04
한국가이드스타 6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국세청 홈텍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에 공시한 결산서류를 제공 받아 평가하는 한국가이드스타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책무성, 재무안정성,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아름다운가게는 평가기준에서 6년 연속
만점을 받았습니다.

21

2021



그리고, 오늘도 아름다운가게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며, 우리가 사는 지구를 지키는 활동을 지속합니다. 나눔과 순환의 가치를 지켜가며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순환하는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 함께하는 세상


아름다운가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노력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난 20년은 대한민국 사회에 나눔과 순환을 뿌리내린 긴 여정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을 통해 전국의 5천여 명이 넘는 자원 봉사자들과 110개의 재사용 나눔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로 매년 약 45억 원을 소외된 이웃과 환경을 위해 나누며 사회의 변화를 위해 힘쓰며 사회혁신가들을 키워 더 많은 아름다운가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가게는 새로운 20년의 도약을 시작합니다. 재활용 산업의 다양한 거래 방식과 경쟁으로 도전받는 이 시점에서 전국 아름다운가게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외형과 질적 성장을 함께 추구하려고 합니다. 시민들에게 참여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겠습니다. 투명한 경영으로 더욱 신뢰받는 아름다운가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가게는 참여자들과 함께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가치를 확립하고 변화를 추구하며 더욱 사랑받는 아름다운가게가 되겠습니다.

지금의 아름다운가게는 모든 활동가들과 후원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분들이 없다면 오늘의 아름다운가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는 모든 분들의 노고와 헌신으로 지금의 아름다운가게가 있습니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가게가 모두가 함께하는 나눔과 순환의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기 위해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2022년 10월
이사장 박진원 

MISSION

모두가 함께하는 나눔과 순환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Create a beautiful world of sharing and circulation where everyone participates.

아름다운가게는 물건의 재사용과 순환을 통해 우리 사회의 생태적·친환경적 변화에 기여하고 국내외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을 지원하며, 시민의식의 성장과 풀뿌리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VISION

공익성과 전문성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NGO

An NGO that serves the public interest with professionalism

공익성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순수성, 가치 지향성, 공익성을 지킵니다.

효율성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는 데 있어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전문성

공익성과 전문성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운동철학

그물코정신

'관계'라는 눈으로 세상의 진실을 봅니다. 씨줄과 날줄로 빈틈 없이 서로 엮인 그물코처럼 우리는 모두 서로의 삶에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되살림정신

나눔과 순환을 통해 세상의 생명을 연장합니다. 과도한 소비와 이기주의로 인한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나눔과 순환을 실천합니다.

참여와 변화

당신의 참여가 세상의 아름다운 변화를 만듭니다. 하나의 기증품, 한 시간의 자원활동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GOVERNANCE STRUCTURE

아름다운가게 조직구성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는 재사용 나눔가게 운영, 자원활동가 참여 확대, 판매 수익의 사회환원 등 다양한 나눔과 순환의 영역에서 이웃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삶과 사회의 이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2년 아름다운가게 1호점 안국점을 개점한 이래 재사용 사업 및 나눔 사업을 확장하며,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원활히 수행해 왔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앞으로도 소외이웃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구를 위한 탄소 저감 활동에 앞장서겠습니다.

아름다운가게 개요 (2022.09월 말 기준)

재단명	(재)아름다운가게
이사장	박진원
설립목적	우리 사회의 친환경적 변화에 기여하고, 국내외 소외계층과 공익활동 지원
설립일	2002년 10월 17일
재단법인 등록	2008년 7월 1일
사회적기업 인증	2007년 10월 29일
인력현황 (유급 활동가)	355명
배분액	61,798,575,133 원(2003 ~ 2021)
시설현황	친환경나눔가게 110개 / 되살림센터 17개
소재지	서울 중구 소공로34

PARTNERS

주요 이해관계자

아름다운가게의 다양한 이해관계는 그물코 철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관계의 매듭으로 얽힌 서로를 의지하며 나눔과 순환을 생활 속에서 실천합니다. 아름다운가게와 연결된 모두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동반자입니다.



BEAUTIFUL CHANGE

아름다운변화를 이끈 사회적가치 환산 결과

2002년 아름다운가게는 물품기부와 봉사 그리고 착한 구매를 통한 나눔을 실천하는 비영리단체로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아름다운가게는 전국에 11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한 해 평균 약 45억원을 소외계층과 기관에 나누고 있으며, 자원재순환을 통해 탄소저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민들 곁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겠습니다.

256,683,859

점의 물건을 재순환 했습니다.

점의

110개의 재사용 나눔가게를 통해 판매된 재사용물품 순환으로

14,621,911 kgCO2의 탄소를 저감하고

1,700,222 그루의 30년생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35,695,732

명의
구매천사와



304,310,875,323

원의
재사용품 수익금을 만들었습니다.



2,131,473,891

개의
종이컵과



307,959,370

개의
비닐봉투를 절약하였습니다.



61,798,575,133

원을
나누고



692 + a

의
나눔장터를 열었습니다.





02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
물품기부
그물코와 되살림센터
아름다운 수거
재사용 나눔가게
자원활동

물품기부

지금은 물품기부가 중고거래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사회적 트렌드로 여겨지지만 사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생활 속에서 실천해 온,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생활 운동입니다.

나의 물건을 누구에게 다시 쓰라고 주기도, 나도 상대방이 사용했던 물건을 다시 쓰는 문화가 어색했던 그 시절. 아름다운가게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와 주변의 이웃들의 물건을 모아 알뜰 시장을 개최하면서 보았던 가능성. 그렇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생활 운동을 모색하기 위해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시작한 이 운동이 지금 20주년을 맞이하여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일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가게는 이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헌 물건에 새 생명을 불어 넣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품기부는 나에게 필요없는 물건을 기꺼이 내놓고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물건의 쓰임과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물건 뿐만 아니라 물건을 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전달됩니다.





소외된 어린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딸의 생일을 기념하여 작아진 옷들과 새 물품들을 기분 좋게 기부하였습니다. 딸에게도 특별한 날 만큼 의미있게 소중한 선행을 알려 주고 싶었습니다.

매장기부자 김O현님

저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집도 정리하고 남도 도우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힘을 보태면 모두에게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죠. 그냥 버리기보다 기부를 통해 필요한 곳에 전달해줄 아름다운가게를 응원합니다.

매장기부자 유O영님

살이 찌서, 취향이 바뀌어서 등의 이유로 입지 않지만 멀쩡한 옷들이라 버리기 아까워 고민하던 중 아름다운가게를 알게 됐습니다. 기부를 통해 필요한 분들께 드릴 수 있어 참 좋은 것 같아요. 집안은 비우고 기부를 통해 마음은 채울 수 있으니까요.

방문수거기부자 정O경님

아름다운가게의 핵심은 물품기부입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기꺼이 내놓은 것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의 실천입니다. 또한 물품기부는 곧 환경보호의 시작이며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가장 쉬운 실천 방법입니다. 아름다운가게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제로웨이스트 상품 구매하기 등 다양한 환경 보호 실천 운동에 동참하도록 합니다.

앞으로 아름다운가게의 역할은 물품기부 편의성을 높이고 끊임없이 기부자들과 소통하여 기부자들이 참여의 가치를 느끼고 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물품기부가 거창하고 요란한 구호가 아니라 생활 속 조용한 혁명이 되길 꿈꾸며, 작은 일을 실천하면서 나와 이웃과 우리 사회가 아름답게 변화 되기를 꿈꿉니다.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나눔과 순환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시다.

그물코 & 되살림센터

아름다운가게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기부자들의 물품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름다운가게는 그곳을 그물코 & 되살림 센터라고 부릅니다. 모두 아름다운가게 운동철학을 바탕으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물코는 씨줄과 날줄로 빈틈없이 서로 엮인 그물코처럼 우리는 모두 서로의 삶에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의미이며 되살림은 과도한 소비와 이기주의로 인한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나눔과 순환을 실천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과 물건, 사람과 물건, 사람과 사람이 연결하는 아름다운가게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곳입니다.

품목별 물품기부 (2002~2021)

총합	의류	잡화	도서	가전
100.00%	59.48%	31.81%	8.39%	0.32%
256,683,859	152,552,773	81,791,609	21,525,506	813,971



초기에는 단순 창고에서 생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아름다운가게가 확장되면서 센터의 상황이 매장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시스템이 갖춘 넓은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서울시와 다수의 기업·기관의 협력과 노력 끝에 2005년 2월 아름다운가게 용답도살림터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실새없이 돌아가며 판매 가능/불가능한 상품이 선별되는 컨베이어벨트, 기준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는 물품물, 매장으로 출고를 기다리는 수많은 박스들 등 되살림센터의 모습은 자원순환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있는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물품들은 이렇게 많은 이의 참여와 노력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곳은 경기 그물코 센터라 불리는 곳입니다.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지만 경기 그물코 센터는 안양에 위치했습니다. 헌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을 필요한 이웃을 위해 내놓는 나눔과 순환의 장(場)인 '아름다운가게'의 되살림 문화 종합관 컨셉으로 선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물코 센터는 센터, 매장, 교육장, 쇼핑물, 순환지원팀 등이 한데 어우러져 나눔과 순환의 생태 교육장으로서 또한 지역주민의 생활운동의 중심 공간으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공간을 통해 아름다운가게 운동철학을 실현된 곳이었습니다.

아름다운가게 그물코 & 되살림센터는 기부자들의 물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자원재순환의 거점으로서 17곳의 센터가 운영 중이며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전국 아름다운가게 매장의 물류 허브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되살림 센터를 통해 수많은 물품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물건의 생명을 연장하는 일은 곧 지구를 되살리는 일이 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아름다운가게 그물코 & 되살림센터의 역할을 계속 기대 바랍니다.



아름다운 수거

아름다운가게는 기부자들이 일정수량 물품을 기부하면 집앞까지 가서 기부물품을 픽업하는 서비스를 진행중입니다. 이를 방문수거라고 부릅니다.

아름다운가게의 수거배송 서비스는 보다 효율적인 기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아름다운가게 매장이 폭발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때부터 전국 아름다운가게는 각 지역의 되살림센터와 연계하여 수거배송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지역적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기부된 물품의 수거와 배송을 체계적으로 운영합니다.



기부자와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방문 전 미리 기부자에게 연락하여 수거 정보를 수집합니다. 방문 시간, 물품 종류, 수량, 부피 등을 확인하며 동선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거 정보를 수집한 후에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하는데요, 서울 되살림 센터에서 출발하는 1톤 트럭의 경우,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출발하여 물품을 수거 후 다시 되살림센터로 돌아옵니다. 수거한 물품을 되살림센터에 이관 후 기부자들에게 기부 완료 메시지를 보냅니다. 기부자들은 기부 물품이 안전하게 센터에 도착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방문수거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어, 소통의 부재를 줄이기 위해 신속하고 상세한 안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수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름다운가게 수거는 전국 110개의 매장과 호흡하고 있습니다. 판매 물품을 매장으로 배송하는 등 기부자와 되살림센터, 그리고 매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아름다운가게는 노후된 일부 트럭을 전기차로 변경하였습니다. 물품 기부와 자원순환으로 탄소를 저감할 수 있지만 시민들의 활동에 동력이 되는 아름다운가게 수거 시스템에서도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과 발전이 예상됩니다.

아름다운가게의 수거는 365일 기부 물품을 수거하고 배송하며 나눔과 순환이 멈추지 않기 위해 오늘도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트럭 1호

현대자동차에서 아름다운 트럭을 기부해주셨습니다. 1톤 트럭으로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물품을 수거할 수 있다는 기쁨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름다운가게 1호 트럭을 가지고 앞뜰시장에 팔 물건도 신고 달렸습니다.

물품기부 수거 과정





재사용 나눔가게

아름다운가게의 처음 모습은 알뜰 시장이었습니다. 2001년 5월 30일에 처음 열렸습니다. 회원 중심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길가에서 열다 보니 점점 알뜰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준비 기간을 거쳐 2001년 9월부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서울 종로구 안국동 참여연대 사무실 앞에서 본격적으로 알뜰 시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 10월부터 이 시장을 정례화하고, 2002년 2월부터 2002년 2월부터 매달 둘째 주, 마지막 주 수요일 2회로 횟수를 늘렸습니다. 대단한 모습으로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운동을 모색하기 위해 참여연대 내에 알뜰시장팀이 대안사회팀으로 새롭게 변신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그 모습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하고 2002년 3월 정식 명칭을 '아름다운가게'로 확정하게 됩니다.

아름다운가게가 입소문은 자연스레 물품기부량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즈음 물품기부의 조직적 수거가 진행되는데 2002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강남 대치동 미도 아파트에서 실시한 뷰티포데이가 아름다운가게 최초의 조직적 수거입니다. 그 달에 기부된 물품이 1톤 트럭으로 4대 분량이 넘게 나왔습니다. 물품수거 양이 점점 늘어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자 한 기부자님이 기꺼이 첫 수거 차량인 다마스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가게의 가능성이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이후 현대자동차에서는 아름다운가게의 또다른 모습인 움직이는 가게를 위해 5톤 윙바디 및 1톤 수거 차량을 기증해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아름다운가게는 시민들 곁에 차근차근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9월 아름다운가게 1호점인 안국점을 계약하고 10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안국동 아름다운가게는 재사용 나눔가게로서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곳이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초창기 1년 내내 매장을 오픈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공간을 기증하거나 그 공간을 임대할 보증금을 마련해주고 또 그 누군가는 인테리어 비용을 기부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인테리어를 해줌으로써 매장으로 오픈하였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그렇게 누군가의 기부와 참여와 헌신으로 꾸준히 성장하였습니다.

2009년 드디어 100호점을 오픈하며 아름다운가게는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는 전국에 11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 매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 아닌 수익 배분을 통한 '나눔', 지역 주민들의 물품 기부를 통한 물품의 '순환'을 실천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결코 혼자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아름다운 꿈을 꾸는 시민, 기업, 기관들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아름다운가게의 역할은 각 지역 에서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환경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제로웨이스트와 업사이클링 상품군을 입점 시키거나 환경 캠페인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시민들이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환경에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아름다운가게를 이용하는 누구나 나눔과 순환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며 지구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활동가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그 자리에서 지역 그린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구매자 수

2002년	17,317 명
2021년	2,465,086 명

142 배

재사용 매출

2002년	108,500,846 원
2021년	23,320,583,696 원

215 배

매장 수

2002년	1 개
2021년	110 개

110 배



자원봉사를 넘어 자원활동으로

아름다운가게에는 다양한 참여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연간 2만여명의 자원활동가들은 아름다운가게가 운영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이들을 자원봉사자가 아닌 자원활동가, 혹은 활동천사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과 사회를 위해 자기의 재능과 시간을 투여하는 자원봉사의 의미에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성을 가진 주체성을 부여하여 '자원활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가게의 자원활동가들은 단순히 매장에서 봉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운가게의 모든 영역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름다운가게 매장은 보이지 않는 벽으로 단절되어 소외된 이웃을 소통시키고 동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지역사랑방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 역할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자원활동가들의 지속적인 활동때문입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선한 이들을 일컫는 대명사로 참여자들을 '천사'라고 부릅니다. 활동천사는 아름다운가게 3대 천사 중 하나(기부천사, 활동천사, 구매천사)로 3대 천사를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합니다. 전국의 활동천사들은 대한민국 자원봉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주체입니다. 단순히 봉사시간만을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닌 재사용과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는 자랑스러운 공익 활동가로서 아름다운가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활동천사는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윤리적소비를 안내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주체로서 자원순환 문화를 지속적으로 전파하며 아름다운가게가 추구하는 사람과 자원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조용한 생활 혁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 자원활동가들이 이렇게 다양한 역할이 가능한 것은 아름다운가게 운영의 동반자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활동천사는 아름다운가게 운영과 재정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의견을 제시하고 다양한 단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회의체는 이사회, 운영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수익나눔자문위원회로 활동천사 대표자를 당연직으로 포함해 아름다운가게를 이끌어가는 주축으로서 함께합니다.



나와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다

활동천사단 발족의 역사

활동천사들이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아름다운가게 활동에 동참하도록 2006년 5월 18일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의 자치기구인 활동천사단이 발족하였습니다. 활동천사단의 목적은 활동천사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봉사활동을 지원하며 사무처와 원활한 의견 교환 및 협력을 통해 자원활동가들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활동천사단에서는 자원활동가들의 친목도모, 아름다운가게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과 참여, 자원활동가 모집 등 아름다운가게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표하는 활동천사 대표단을 구성하였는데, 활동천사 대표단은 활동천사와 사무처와의 의견교환, 업무 협조자로서 각 지역의 활동천사들의 의견을 대표하며 아름다운가게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6년 발족한 직후에는 강원도 평창 지역 수해 피해 지역에 활동천사단 22명이 긴급하게 파견되어 수해복구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원활동가들이 아름다운가게 소속을 넘어서 외부로 나갈때는 자원활동이라는 이름 그대로 우리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자원활동의 진정성을 더하였습니다.

자원활동가들이 아름다운가게 소속을 넘어서 외부로 나갈때는 자원활동이라는 이름 그대로 우리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자원활동의 진정성을 더하였습니다.





활동천사캠프

활동천사 캠프란 아름다운가게 매장 활동천사(자원 활동가)들의 단합과 화합을 위한 행사로, 그동안 아름다운 가게를 위해 봉사해 주신 활동천사들의 노고를 기리고 새로운 도약을 다지는 자리로 전국의 활동천사들 약 1,000여명이 활동천사캠프는 전국의 활동천사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고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프로그램, 이벤트를 함께 진행합니다. 전국 활동천사들의 장기자랑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캠프의 묘미입니다.

활동천사 강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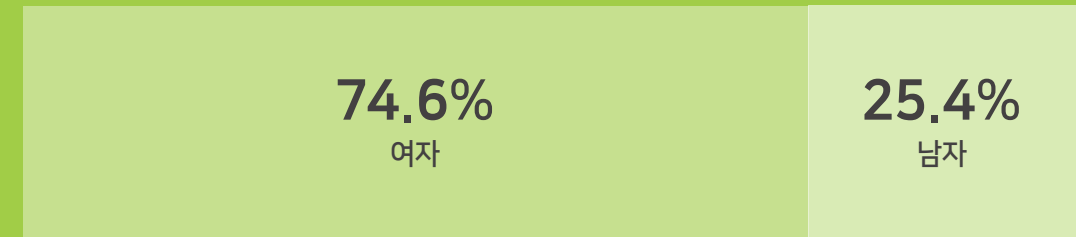
아름다운가게 활동천사들에게는 원할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직무교육과 건전한 시민활동가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도 제공됩니다. 활동천사 대상의 교육을 위해 활동천사로 이루어진 강사단도 운영중이며 신입 활동천사들의 교육 뿐만 아니라 자원활동가들을 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합니다.

Thanks 1004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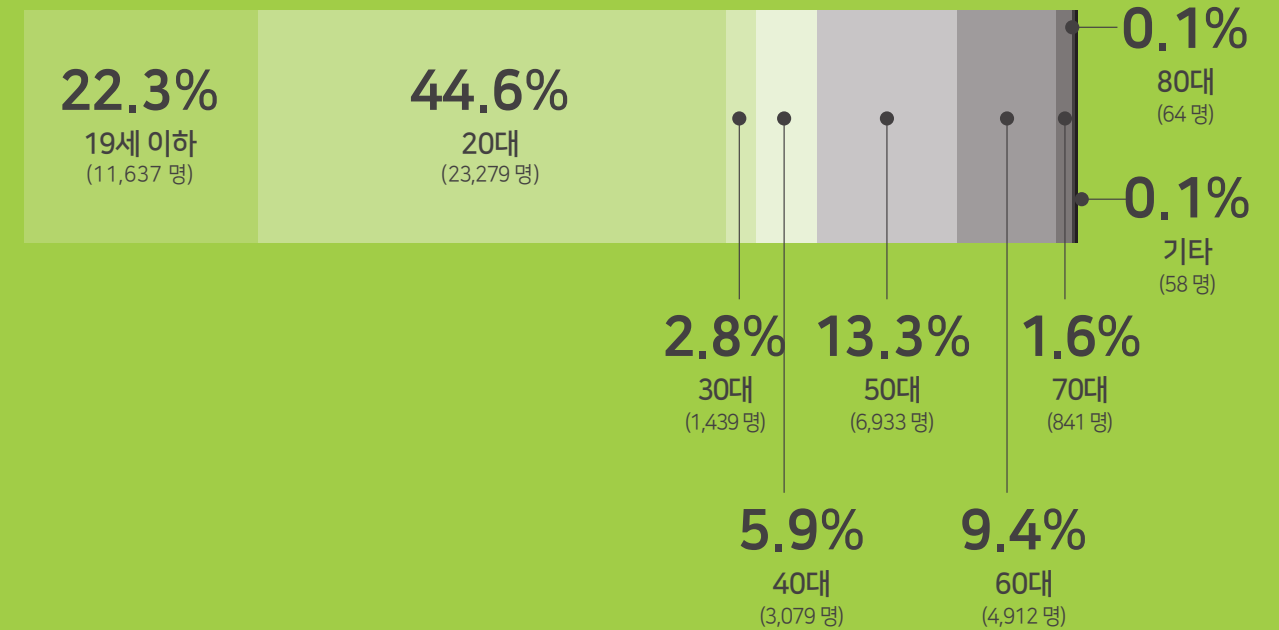
아름다운가게 자원활동가들은 아름다운가게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주 1회 4시간씩 오랜 기간 활동하는 분들에게는 Thanks 1004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의 노고를 인정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00시간, 500시간뿐 아니라 1004시간 이상부터 10004시간 이상까지 시간대별로 분기별로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이 새겨진 앞치마와 시간대별 배지는 활동천사들의 자랑입니다.

이렇듯 아름다운가게 자원활동가들은 자원봉사의 기본 정신을 뛰어넘어 보다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활동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성장해 가는 자원활동가들은 나눔과 순환의 문화를 전파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주변, 지역사회를 변화 시키는 주체가 됩니다. 20살의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성장한 자원활동가들의 앞으로의 역할을 더욱 기대합니다.

활동천사 성별(2021년 기준)



활동천사 연령 분포(2021년 기준)





03

참여를 통한 변화를 만들어온 아름다운 활동

업사이클링 사업
아름다운 사회공헌
현금후원
나눔장터
사회적기업센터
나눔교육
공익상품

에코파티메아리

아름다운가게 업사이클링 사업은 순환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들과 기증품의 활용방안을 찾습니다. 원재료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그에 맞는 새로운 컨셉과 디자인을 결정 후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킵니다. 그 대표 브랜드가 바로 에코파티메아리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업사이클링 브랜드입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불법 광고 현수막이 난무하던 시절, 아름다운가게는 2003년 말 재활용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그 때 대상을 받았던 '현수막 가방'이 에코파티메아리의 아이디어의 시작이었습니다.

에코파티메아리의 에코(Eco)+파티(Party)+메아리(Mearry)는 '환경(에코)을 '파티'처럼 즐겁고 신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메아리'처럼 퍼뜨리자는 뜻을 담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아름다운가게로 기부된 중고물품 중에서 매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것들과 산업적으로 대량으로 폐기되는 소재에 젊은 디자이너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완전히 새로운 패션 상품을 탄생시켰습니다.



2006년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재활용디자인 사업부로 출발한 에코파티메아리는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07년 1월 정식으로 출범합니다. 그 이듬해 2009년 2월 10일 뉴욕현대미술관(MoMA)의 세계 주요 도시를 주제로 신에디자이너를 발굴하는 '데스티네이션 서울' 전시에 선정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뉴욕현대미술관(MoMA)의 큐레이터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에코파티메아리의 제품을 보고 디자인 뿐만 아니라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에코파티메아리가 MoMA에 진출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 원인은 '메아리의 환경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 15일 에코파티메아리 인사동 단독 매장을 개점하여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에코파티메아리 론칭 이후 일부 패션 브랜드들이 친환경적인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리사이클링 상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품을 생산하는데는 많은 노력과 애정이 필요했습니다. 제작 과정 자체에 많은 손길이 가야했고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소재에 따라 분류하고 세탁하는 과정이 곧 에코파티메아리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곧 나눔 철학의 실천이었습니다. 구 단위의 자활 공동체 생활이 어려운 가장 등 사회적 취약 계층 등을 제작에 참여시켜 인건비를 지불하고 공정에 대한 손길을 제공받는 등, 모든 것의 선순환을 이끌었습니다.

에코파티메아리만의 디자인 가이드도 있었습니다. 적절한 재단으로 소재의 손실을 없애고



부속은 최소화하는 마이너스 공정으로 낭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판매되는 것이 오래 사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상품 자체의 디자인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대를 앞서왔던 에코파티메아리가 제품이 아닌 운동으로 소개되어야 마땅한 이유는 바로 모든 과정이 아름다운가게가 가지고 있는 나눔과 순환의 가치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에코파티메아리의 확장으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으로 업사이클링 인식개선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류 뿐만 아니라 페플라스틱, 폐목재 등 다양한 소재 개발을 통해 다양한 산업군에서 적용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축제와 콜라보를 통해 에코파티메아리를 소개하고 젊은 세대들이 업사이클링과 환경을 소개하며 참여를 이끌었고, 최근에는 환경교육과 연계한 업사이클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의미를 되새기며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에코파티메아리는 쉽게 물건을 사서, 쉽게 물건을 버리는 패스트 패션에 반기를 들고, 버려지는 것들이 다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져왔다는 것에 매우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세대를 위한 다양한 환경교육으로의 영역을 확장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업사이클링으로 지구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공헌

함께하는 파트너가 있다는 것

사회공헌은 사회를 위해 힘을 써 이바지하는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에게 이윤 추구 외에 폭넓은 사회적 책임이 가중되면서 각 기업마다 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로 부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단순한 사회적책임에서 더 나아가 환경에 해가 되는 행동을 줄이거나 없애고 사회를 보다 공정하게 만들고 기업을 법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없이 경영하고자하는 ESG(Enviro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2002년 설립 당시부터 공공기관과 기업들과 함께하며 이웃과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그 대표 사회공헌 활동이 바로 '아름다운토요일'입니다.

아름다운토요일은 아름다운가게 재사용 나눔가게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쉬지 않고 열리던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아름다운토요일의 핵심은 임직원이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사나 기업 차원에서 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임직원들의 실천이 없다면 이런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운토요일은 아름다운가게와 오랫동안 함께해 온 수많은 기업/기관들과의 아름다운 나눔과 순환의 결정체입니다. 이미 아름다운가게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물품기부와 행사를 통한 수익 배분으로 ESG의 E(Enviroment)를 선도하며 실천해왔습니다.



초창기에는 아름다운토요일 형태의 기업사회공헌이 자리잡았다면 그 이후로는 점차 기업의 특성을 살린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기업과 재단법인 간의 역할을 충분히 논의하고 보다 풍성한 나눔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제일모직과 함께 하는 '크는 나무' 환경교육 공모사업이나 풀무원과 함께 하는 결식아동 지원사업, 화승과 함께 하는 저소득 아동 체육교육 지원 사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사회공헌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초록산타'라는 나눔사업 브랜드를 개발하여 오랫동안 꾸준히 사노피-아벤티스와 함께 만성·희귀난치성 질환, 암 등 신체적 아픔을 겪는 아동, 청소년, 청년들이 치료 과정과 일상 생활에서 정서적으로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대응제약과 피치마켓과 함께 발달장애인들이 질병의 증상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참지마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 이슈가 대두되면서 주목받은 사회공헌도 있습니다. 락앤락과 플라스틱 용기를 기부받아 새로운 업사이클링 벤치로 탄생시키거나 배달의 민족과 함께 사용하지 않고 쌓여있는 일회용 수저·포크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려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기업이 그들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데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인 전국 110여개 매장과 지역별 되살림센터를 기반으로 자원재순환, 현금후원, 임직원 자원활동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서의 기업사회공헌을 더 단단히 다져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기부 활동을 제안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현금 후원

아름다운가게는 기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왔습니다. '기부는 곧 돈'이라는 공식을 깨고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자신이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도 곧 기부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더불어 아름다운가게 초창기에 새로운 기부 문화를 정착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공간 기부입니다. 시민들이 나눔과 순환을 체험할 수 있는 재사용 나눔 문화 공간을 기부함으로써 공간도 사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 인식의 확장을 이끌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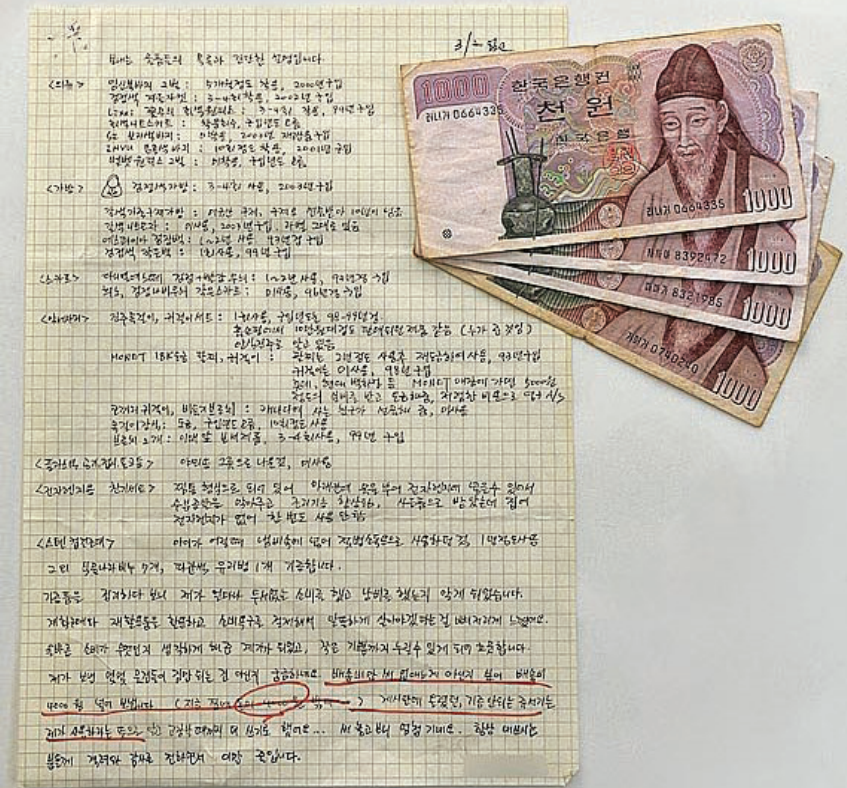
2005년까지만 해도 아름다운가게의 모든 매장은 기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2002년 10월 1호점을 개설이후 2005년까지 합산한 수치를 살펴보면 전국 총 50개의 아름다운가게 매장이 1달에 1.6개 꼴로 개설되었습니다.

아름다운가게 초기에는 아름다운가게 관계자의 인맥이나 사회공헌에 관심있는 기업·기관들의 참여로 매장기부가 이어졌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개인이나 기업 뿐만 아니라 상가, 종교단체, 대학 등으로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공간기부는 아름다운가게 매장의 전문적인 운영시스템을 통해 수익금을 발생시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눔의 규모를 증가시켰습니다. 초창기 공간기부는 아름다운가게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공간기부를 통해 아름다운가게가 성장의 궤도에 올라섰을 때즈음 보다 적극적인 개인의 후원을 이끌어내기위해 모금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아름다운가게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금 캠페인을 통해 개인 후원자를 개발하고, 나눔사업의 기금을 마련합니다. 기금관리부터 후원자 생애주기 관리, 모금기획&실행까지 크게 3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 업무는 기부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업무이고, 후원자 생애주기 관리 업무는 아름다운가게에 참여하는 후원자분들께 감사의 마음과 나눔사업의 소식을 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후원자들과 소통하며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킵니다.

앞으로 아름다운가게는 현금후원 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발굴하여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매장과 연계된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더 힘쓸 것 입니다.



“ 아름다운가게는 국내 사회적기업으로 자생한 대표적 성공사례다. 그렇기에 아름다운가게가 재사용나눔가게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후원자들의 기부금을 더해 국내외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아름다운가게 기부자

생활 속에
스며든
나눔의
즐거움

나눔장터

아름다운 나눔장터의 모태는 서울시와 아름다운가게가 공동주최했던 지상 최대 벼룩시장입니다. '재사용과 나눔의 대축제, 천 만이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이야기' 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들의 '재사용, 환경, 나눔, 기부'에 대한 인식 전환하고 시민, 기업들이 실천적으로 '재사용과 나눔'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희망과 용기, 경제적 지원을 함께 전했습니다.

이들간 진행되었던 지상 최대 벼룩시장의 첫날에는 많은 비가 내렸지만 수많은 단체의 후원과 시민들의 뜨거운 참여 열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날에는 폐장시간이 가까워져도 시민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스타의 애장품 판매, 환경 디자인, 환경 퍼포먼스 등 다양한 행사의 진행으로 이날 행사는 당초 8만 명 정도의 참여 예상 인원을 뛰어 넘는 20여만 명이 찾았고 6천여 평이 넘는 행사장에 760개 팀이 2,000여개의 좌판을 열었으며 자원봉사자도 700명에 달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아름다운가게는 '아름다운 나눔장터' 운영을 위한 '벼룩시장팀'을 꾸렸습니다. 이 팀에서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독서에서 진행되는 아름다운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5월 5일 어린이 날에 아름다운가게 '어린이 벼룩시장 병아리떼 쪼쪼쪼', 6월엔 'We Start 나눔장터' 등의 특별한 행사를 운영했습니다. 아름다운 나눔장터가 기타 벼룩시장 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물건을 사고 팔며 그 수익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재고물품 판매를 엄격하게 금하였고 자릿세 대신 판매 수익금을 자율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나눔장터를 수익을 위한 장이 아니라 나눔과 순환을 경험하는 어린이들의 체험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했습니다. 동화구연, 생태 사진 전시회, 놀거리와 볼거리가 많았던 나눔장터에는 늘 어린이들로 가득했습니다.

환경 아트 전시 및 페카트리지와 천연염료로 티셔츠 그림 그려주기 등 다양한 환경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나눔과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나눔장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나눔과 환경의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준비부터 운영 그리고 결과보고까지 모든 시간들이 쉽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독서 아름다운 나눔장터를 기억하고 찾아주셨던 시민분들 덕분에 아름다운가게가 이루고자 했던 '환경 관광 명소'로서,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의 장'으로서, 그리고 서울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감동적인 '축제의 장'으로서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독서 아름다운 나눔장터가 이제는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며 각기 지역 특성을 살린 벼룩시장을 여는 도화선으로의 역할이 되었음을 자부합니다.



어린이 벼룩시장 '병아리떼 쫄쫄'

부족함없는 장난감, 책, 옷, 너무 일찍 알아버린 돈의 의미를 어떻게하면 어린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어린이벼룩시장, 이름도 귀여운 병아리떼 쫄쫄.

병아리떼 쫄쫄은 "5월 5일 우리 아이들에게 물고기 잡는 아름다운 방법"을 선물하세요"라는 메시지로 아름다운가게의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나눔과 순환의 장터로 기획되었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본 행사는 신한금융그룹의 후원으로 서울 포함 전국 15개 도시에서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수익금의 일부를 장애 어린이 돕기에 자발적으로 기부함으로써 나눔의 삶을 터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5월 5일 어린이벼룩시장 "병아리떼쫄쫄"은 장난꾸러기 아이들에게 (1)알뜰살뜰 아껴모아 장사를 준비하며 배우는 재사용습관, (2)직접 가게 주인이 되어, 가격 결정, 흥정하며 배우는 시장원리, (3)수익금으로는 직접 어려운 친구를 돕는 나눔 실천의 장(場)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벼룩시장의 엠블렘 또한 어린이를 상징하는 노란 병아리가 아름다운가게의 앞사귀를 물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 5월 5일
우리 아이들에게
'물고기 잡는
아름다운 방법'을
선물하세요. ”



위아자나눔장터

위아자 나눔장터는 위스타트, 아름다운가게, 자원봉사의 약자로 중앙일보 창간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05년 9월 25일 개최된 나눔장터입니다. 기부금 모금 규모, 단일 행사 집객 면에서 우리나라 최대의 베풀시장입니다. 언론, 지방정부, NGO와 시민 그리고 기업까지 모두가 함께 자신의 헌 물건을 판매하고 수익금의 50% 이상을 기부하는 사회 공헌 활동으로 첫 행사가 열린 서울에서만 약 10만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후 전국 4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개최되었고 자원 재사용과 나눔 문화의 확산, 어린이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사 수익금은 모두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아자 나눔장터는 매년 성장을 거듭하였고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2020년 판매 기부금이 누적 21억을 돌파하였습니다. 장터를 통해 소나무 약 218만 그루를 심는 환경적 효과를 이루었습니다. 위아자 나눔장터는 중앙일보, 위스타트, 그리고 아름다운가게가 함께 만든 멋진 합작품입니다. 매년 열리는 위아자 나눔장터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독섬 아름다운 나눔장터 (2004 ~ 2019)

총 운영횟수 **463** 회
관람객 **5,740,850** 명
자원활동가 **21,713** 명

병아리떼 쫓쫓쫓 (2003 ~ 2019)

총 운영 지역 **229** 곳
관람객 **1,287,615** 명
참여팀 **32,741** 팀

위아자 나눔장터 (2005 ~ 2021)

총 판매 기부금 **22** 억
명사 기증품 수량 **9,474** 점

사회적기업센터

제2, 3의 아름다운가게를 꿈꾸는 뷰티풀펠로우

아름다운가게의 성공은 늘 다른 단체들의 표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가게는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름다운가게로 인해 우리 사회는 얼마나 행복해졌을까?"

2007년 즈음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곳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부에서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만들고 양극화, 청년실업, 고용창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민간 차원에서도 인큐베이팅, 교육, 컨설팅 등 사회적기업을 위한 일들을 활발히 진행하였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어떤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갈 지를 모색하였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지가 고민이었다면 지금 부터는 어떻게 나누며 우리 사회의 행복지수를 높일 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1년, 자립을 넘어서 연대와 협력으로 가는 사회 변화 시스템을 만들고 아름다운가게 수익 나눔의 혁신으로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오랫동안 구상해오던 사회적기업센터를 오픈하였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사회적기업의 대표 선수로서 선수 생활을 하며 겪었던 시행착오, 성공과 실패의 경험, 노하우를 나누며 후배이자 동료인 사회적기업의 손을 잡아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후배 선수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통, 사회적 투자 등의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기업 간의 펠로우십(Fellowship)을 형성하여 협력과 연대의 사회적 경제로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뷰티풀펠로우입니다.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하여 3년간 생활비를 지원하고 해외 연수 등 국내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가게가 맺은 좋은 인연들도 나누고 아름다운가게 인프라도 공유하면서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뷰티풀펠로우는 사회혁신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하고 그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조직구성원과 함께 성장하며, 변화하고자 구성원들에게 비전과 영감을 불어넣는 변혁적 리더여야 합니다. 사회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기본 자세와,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눈으로 일상의 문제를 대하고 이를 타인과의 연대를 통해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뷰티풀펠로우가 10기를 넘어섰습니다. 10년 동안 함께한 뷰티풀펠로우들은 아름다운가게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곳의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하고 있습니다. 펠로우들의 사회적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펠로우들과 처음 사회적기업센터를 통해 뷰티풀펠로우 사업을 시작했던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아름다운가게 역할을 해낼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지속적으로 나눔의 효과를 증대하고 재생산하며 우리 사회에서 나눔과 환경의 가치를 건강하게 확장시키고자했던 그 목표를 말합니다.

뷰티풀펠로우들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혁신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이미 그들은 아름다운가게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가게의 자랑입니다.

총 선발인원

총 지원 금액 (2011 ~ 2021)

49 명

2,024,983,872 원

나눔교육

아름다운가게 나눔교육의 시작은 아름다운 나눔학교입니다.

아름다운 나눔학교는 2005년에 헌물건의 재사용을 통해 환경보호와 기부문화를 배우는 체험 학습 프로그램으로 학교가 단지 교과서를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이웃과 사회의 문제를 고민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물건을 기부하고, 직접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친구를 도왔습니다. 기부된 물품은 학교 교내에서 판매행사를 하거나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소규모로 기증, 판매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나눔학교에서 만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통해 아름다운가게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회공헌의 의미를 학교에서부터 친숙하게 접하고 습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버려지는 헌 물건을 모으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교육을 본격적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나눔학교는 학생, 교직원이 모두 함께 나눔과 순환을 알고 실천하는 즐거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례로 2008년 PIC Korea와 함께 나눔씨앗기금을 마련하여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나눔의 기쁨과 소중함을 알려주는 어린이 기부 문화 캠페인 '나눔씨앗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내 아동들을 대상으로 나눔특강 및 나눔교육 프로그램 보급과 여행의 기회를 갖지 못한 소외계층 아동의 여행지원, 어린이 척피니 리더십 캠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2010년부터는 나눔과 환경, 윤리적 소비, 재활용, 사회적경제 등 주제별 교육으로 전환개편하였습니다. 교육 이외에도 강사·서포터즈 양성, 나눔씨앗캠프, 아카데미 등 활동의 폭을 넓히며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습니다.

2018년부터 전남본부는 나눔장터 및 아름다운 나눔학교 운영을 함께 하고 있으며 교육가족들이 기증한 헌 옷과 생활용품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의 초·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이웃사랑 및 절약 정신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며 나눔학교를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눔교육 진행횟수 (2011 ~ 2021)

1,657 회

최근 3년간의 연평균 교육참여자 수

1,900 여명



공익상품

착한 생산자 착한 소비자

매장 한 칸에 재사용물품이외에 판매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익상품입니다. 공익상품은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자활단체, 친환경 단체의 상품으로 시민들이 이를 소비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전체에 이익이 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공익상품 사업은 어떻게하면 아름다운가게 매장의 선순환의 역할을 더욱 확장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생산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해 아름다운 가게는 검증된 공익상품을 매입한 후 홍보와 판매, 배송까지 도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생산자와 협업하여 직접 상품을 만들기도 하는데 사회적기업 오제이(주)와 함께 만든 '아름다운 감귤주스', 필리핀 생산자로부터 공정무역 원칙으로 수입해온 마스코바도가 대표적 상품입니다. "아름다운 코코넛칩", '아름다운 코코넛오일 등의'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도전도 했습니다.

현재는 전국의 우수한 120여개 생산자의 제품을 입점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판매처는 전국 110여개의 아름다운가게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뷰티풀마켓, 홈쇼핑 등 다양한 채널입니다.

아름다운가게 공익상품에 입점 방법은 다양합니다. 담당 MD가 직접 채널에 적합한 품목을 찾아 생산자에게 연락하기도 하고 전국 매장의 지역 네트워크, 여러 지원 단체 및 기관을 통해 추천 받기도 합니다. 입점을 희망하는 생산자가 직접 연락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관 및 생산자의 첫 번째 조건인 공익 생산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적합한 QA서류(시험성적서,인증서 등)를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부 품평회를 통해 품질, 패키지, 맛, 가격 적정성 등을 평가합니다. 품평회에 통과가 되면 현장 실사를 통해 최종 입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탈락한 생산자에게는 이후에 더 나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되도록 품평 내용과 개선점을 전달합니다. 향후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반영하여 제로웨이스트 제품군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공익상품의 소비는 곧 그 제품을 생산해내는 생산자들의 안정화를 뜻하며 이는 생산자들의 자신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반이 됩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가게 공익상품 사업은 우리 사회에 이로운 제품의 지속가능한 소비문화를 안착시키고 착한 생산자와 착한 소비자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공익상품의 소비는 곧 그 제품을 생산해내는
생산자들의 안정화를 뜻하며
이는 생산자들이 자신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
하는데 기반이 됩니다.

입점단체수

단체별 거래규모

1 개

2006년

12,456 원

2006년

141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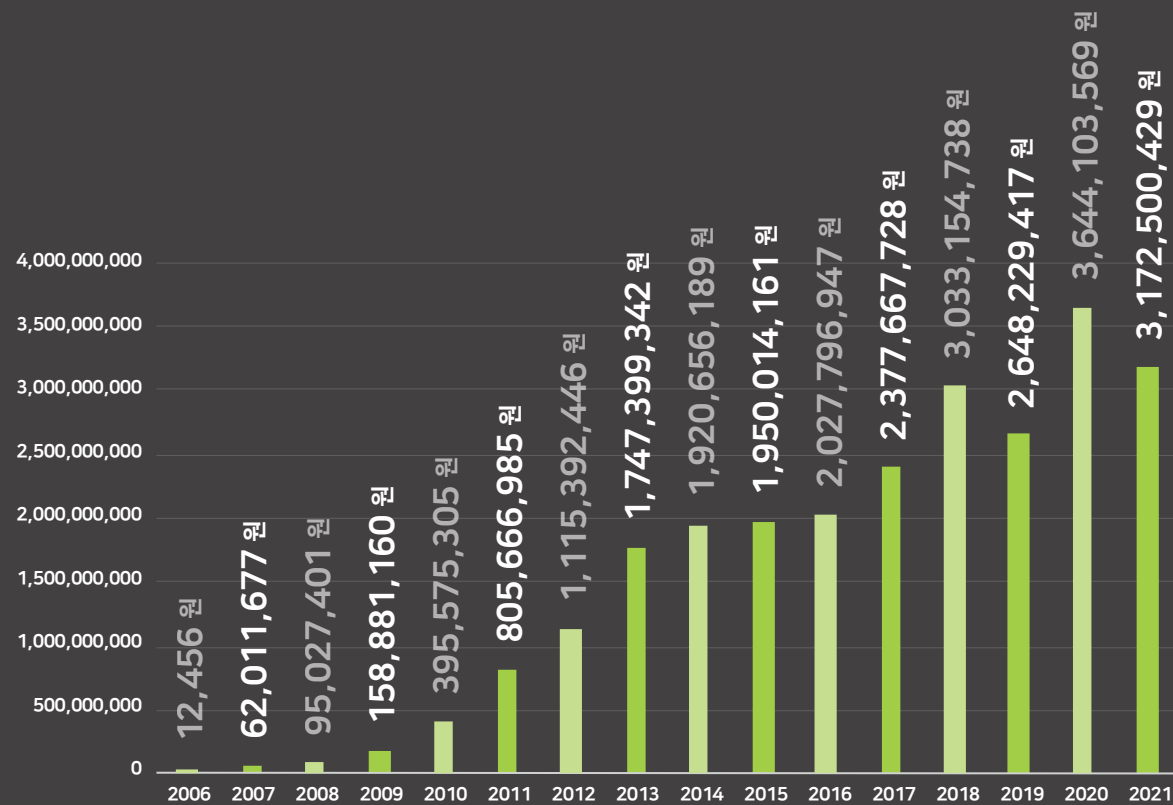
2021년

3,172,500,424 원

2021년



공익상품 거래 규모





04

느리더라도
꾸준히 일어나는 변화

—
나눔사업

지속가능한 나눔사업 자립을 위해

2002년 10월 아름다운가게 1호점 안국점을 열면서 아름다운가게는 그 수익을 정관에 명시된 대로 소외된 이웃을 돕기위해 사용하였습니다. 1천만 원이었던 1차 수익나눔의 금액이 설립 후 1년간 3억 8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474명의 어려운 이웃과 그들을 위해 일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나눴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렵고 지친 이웃들에게 넉넉하지는 않아도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간의 나눔의 누적이 618억을 넘어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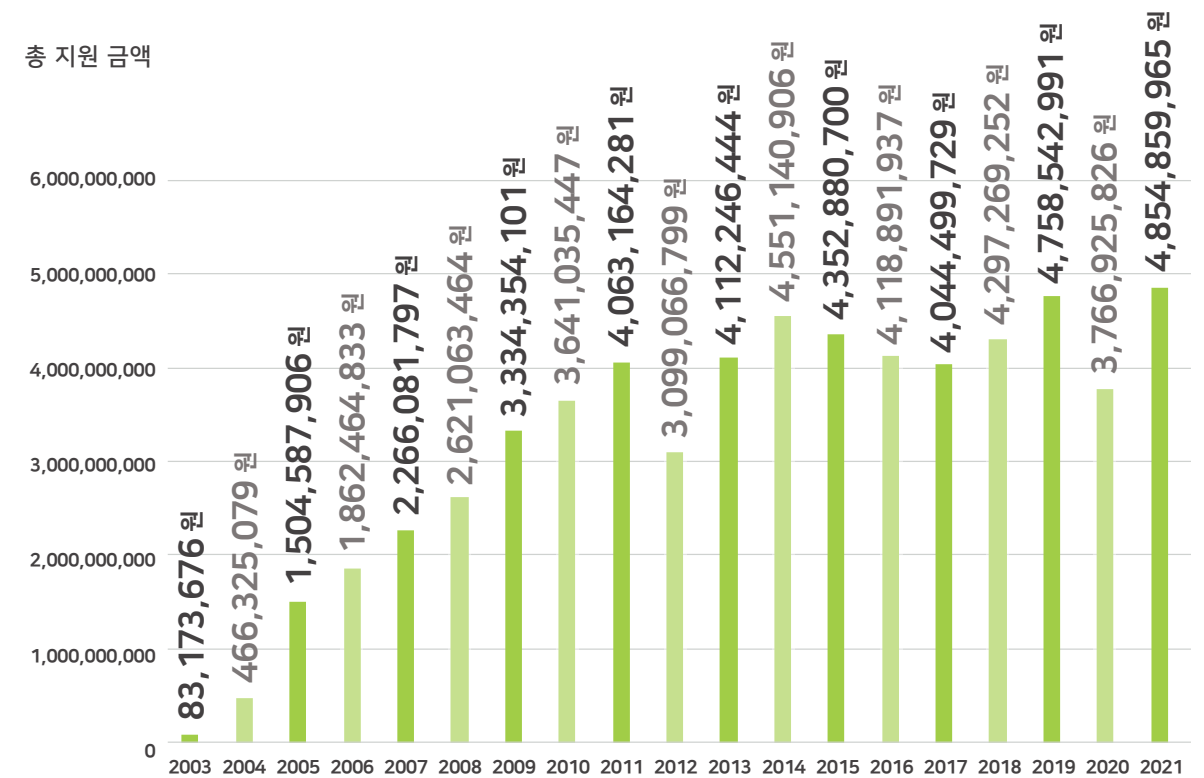
아름다운가게의 나눔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나눔을 물품기부, 봉사, 구매 등, 아름다운가게 참여자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가게 나눔사업은 매우 특별합니다.

총 지원 대상자

연도	총 나눔 지원(명)	개인 수혜자 수(명)	지원단체 수(곳)
2003	188	161	27
2004	561	475	86
2005	1,131	980	151
2006	1,275	1,098	177
2007	1,226	1,131	95
2008	1,440	1,283	157
2009	5,266	4,463	803
2010	6,355	5,842	513
2011	7,236	6,722	514
2012	8,146	6,511	1,635
2013	6,169	5,205	964
2014	8,198	7,565	633
2015	21,761	7,495	503
2016	67,033	7,361	379
2017	79,531	8,154	328
2018	100,354	7,338	313
2019	97,223	7,317	321
2020	130,870	10,940	38
2021	933,852	8,166	1,379

“ 헌 물건에 새 생명을, ”
이웃에겐 희망을

아름다운가게가 나눔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그 중 오랜 역사를 가지고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굵직한 나눔사업을 소개합니다.

주요 나눔사업

아름다운희망나누기

-
총 운영기간 : 2003년 ~ 현재
총 지원금액 25,522,916,682원
총 지원 대상자 : 720,911명

아름다운희망나누기는 아름다운가게 전국 매장의 수익을 1년에 2번, 매장이 속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아름다운가게의 정기수익 나눔사업입니다. 10년 동안은 상하반기에 걸쳐 모든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저소득층의 개인과 공익단체를 지원했습니다. 현재에는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체에 집중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내용 : 지역밀착형 배분사업으로 지역사회 환원의 의미에서 매장인근지역의 차상위계층, 수급자, 일반 저소득층의 의료비, 주거환경개선비, 학비, 취업 교육비를 지원

아름다운나눔보따리

-
총 운영기간 : 2004년 ~ 현재
총 지원금액 : 6,335,295,616원
총 나눔보따리 개수 : 75,309개

2004년 첫 아름다운 나눔보따리는 2003년 지상최대의 벼룩시장 수익금 4천 1백만 원으로 구입한 쌀과 각 기업에서 협찬한 상품으로 이루어진 1000개의 보따리를 가족, 직장동료, 동호회원 등으로 구성된 시민 배달 봉사자 400여명과 함께 관악구 봉천동 난곡마을, 노숙자 무료 급식소인 동대문 프란치스코의 집, 소년소녀 가장의 집 등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아름다운가게 정기 나눔 캠페인으로 확정하고 매년 설날 1주일 전 쌀과 생활용품으로 구성된 보따리를 독거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회복지단체/기업/일반시민이 공동으로 만들어 가는 행사로서 많은 참여자들을 모집하여, 관심을 행동으로 바꾸는 캠페인을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초록산타

-
총 운영기간 : 2004년 ~ 현재
총 수혜자 수 : 4,392명

아름다운가게의 나눔과 순환의 정신을 어린이들에게 되돌려 주는 기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초록산타'는 비영리재단의 목표를 공유하는 기업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당시 사노피-신데라보 코리아)의 씨앗기금으로 시작된 사회 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처음 '초록산타'는 소아병동 환우, 장애아, 보육원 등의 소외 아동의 정서지원프로그램으로 꾸며진 5톤 트럭 규모의 대형 특수 공연이였습니다. 현재는 아름다운가게,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다음세대재단, 유스보이스와 함께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 암 등을 앓고 있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심리 지원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외아동 정서지원 사업

-
총 운영기간 : 2010년 ~ 현재

가정 해체, 빈곤, 질병 및 장애 등의 위기 상황에 놓여 올바른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해 마음이 다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술, 문화, 체육 등의 예체능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자기 감정을 표출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얻어 궁극적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보호종료청년 (자립준비청년) 지원

-
총 운영기간 : 2010년 ~ 현재

보육원 퇴소(예정)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 및 적응을 위한 과정을 지지하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아름다운가게 관악자명점의 매장 수익금 및 기업과 개인 후원금으로 구성되어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아름다운가게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 적응을 위하여 경제 학업 진로의 영역에서 자립기반과 역량을 길러나가는 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 급식지원 사업

-
총 운영기간 : 2010년 ~ 현재

아름다운가게는 매년 대규모 나눔장터를 열었습니다. 나눔장터의 주요 나눔 테마가 바로 방학 중 급식지원이었습니다. 독심 아름다운나눔장터, 광화문 희망 나눔장터, 위아자 나눔장터에 판매자로서 참여하는 시민들이 소중한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해 주시면 아름다운가게는 이 기부금으로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방학 중 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맞춤형 테마요리교실등의 수업을 진행하여 균형잡힌 식사의 정보 제공 및 아이들이 요리사로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현재도 지역아동센터들과 협업하여 아이들의 방학 중 식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숲 조성 사업

-
총 운영기간 : 2017년 ~ 현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도시 숲을 조성하고 쾌적한 도시경관과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 청담도로공원에 서울의 맑은 공기를 위한 첫 숲 조성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노들길과 올림픽대로 사이에 위치한 녹지 공간(선유교 인근)에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기대되는 느티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산철쭉 등 2천 백그루를 식재하였습니다. 이후 다양한 기업·기관과 협력하여 기금을 마련하여 녹지 소외지역 생활권의 녹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장 테마 배분

매장의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지정하여 배분하는 사업으로 논현점의 경우 매장기증자 대응제약과 함께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한 놀이터를 지원하거나 헌책방 수익의 경우 비영리모금에 전문자료실구축, 비영리 모금 관련 서적 번역 및 출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정기 테마 배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장터나 어린이 벼룩시장 등의 기부금과 사업 수익금을 모아 배분합니다. 매해 수익 나눔의 테마를 정하여 지원하는데 나눔장터의 경우 방학 중 급식, 독서 교육, 숲 조성 등을 지원하고 어린이 벼룩시장의 경우 장애아동의 놀이, 재활 프로그램, 치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시 배분

예상치 못한 재해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이나 재사용 현물을 필요로 하는 개인과 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공연관람 및 문화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문화나눔도 진행하였습니다.



긴급구호 지원 내용

아름다운가게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 어디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 2003.11 태풍매미 피해 지원
- 2004.04 용천역 피해복구 북한 돕기
- 2005.02 쓰나미 피해 지원
- 2005.08 전북 수재민 지원
- 2006.03 파키스탄 강진 지원
- 2006.06 인도네시아 강진 지원
- 2006.08 평창 폭우 지원
- 2007.08 서남아시아 문준 지원
- 2008.05 미얀마 사이클론 나르기스 피해 지원
- 2008.06 북한 긴급 식량지원 1차
- 2008.12 북한 긴급 식량지원 2차 지원
- 2010.01 아이티 지진피해 긴급 구호 지원
- 2011.03 일본 대지진 및 쓰나미 피해지역 긴급지원
- 2013.07 강원도 춘천 폭우 피해지역 긴급 현물지원
- 2013.08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붕괴사고 모금액 전달
- 2013.09 필리핀 태풍 '하이옌' 수재민 긴급지원
- 2015.05 네팔 지진 피해지역 긴급지원
- 2017.08 청주 수해지역 긴급지원
- 2017.11 포항 지진 피해 긴급구호 물품 지원
- 2018.02 로힝야 난민 긴급 구호
- 2018.09 인도네시아 지진, 쓰나미 피해 긴급 지원
- 2020.03 코로나19 위기가정 긴급 생계비 지원
- 2020.08 섬진강 범람 수해 500가구 구호 생필품 전달

그 밖에 아름다운가게 주요 나눔사업 히스토리

아름다운세상 프로젝트

2007년 6월 아름다운가게는 영국의 구호단체 옥스팜(Oxfam GB)과 함께 우리, 그리고 저개발국 이웃 모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아름다운세상 프로젝트 (The Beautiful World Project)'를 진행했습니다.

2007년 5월 22일 '아름다운세상 프로젝트 - 나마스떼, 갠지스!' 출범식이 서울 안국동 윤보선 고택에서 열렸고 2억여 원의 기금 마련을 목표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아름다운세상 프로젝트 시작의 첫 테마는 '나마스떼, 갠지스!(Namaste, Ganges!)' 로서 매년 여름 쏟아지는 몬순성 폭우로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서남아시아 갠지스강, 브라마푸트라강, 메그나강 유역의 이웃이 대상이었습니다. 일회성 지원보다는 안전한 주거 지역 설계, 연못 및 농지 개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안겨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기존의 국제구호의 일시적인 구호에서 한층더 업그레이드 되어 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용방향과 지원내역을 기부자들에게 제공하여 기부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탤런트 전인화, 유동근 부부가 홍보 대사가 되어 함께해주셨습니다.

나마스떼 갠지스

운영기간
2007년 5월 ~ 2021년 4월

영국 구호기관 '옥스팜'과 손잡고 갠지스강 유역 상습수해지역 주민들 지원하기 위해 시작하였습니다. 서남아시아 사람들이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홍수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장기적인 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현재는 네팔 소농민(여성중심)들이 농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농업 인프라 구축과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굿모닝 베트남

운영기간
2009년 ~ 2021년 4월

베트남 소수민족의 교육 및 경제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에서 모금을 통해 마련한 지원금으로 현지에 학교설립, 학용품지원, 교복지원, 전문교사 양성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베트남의 소수민족 청소년들이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의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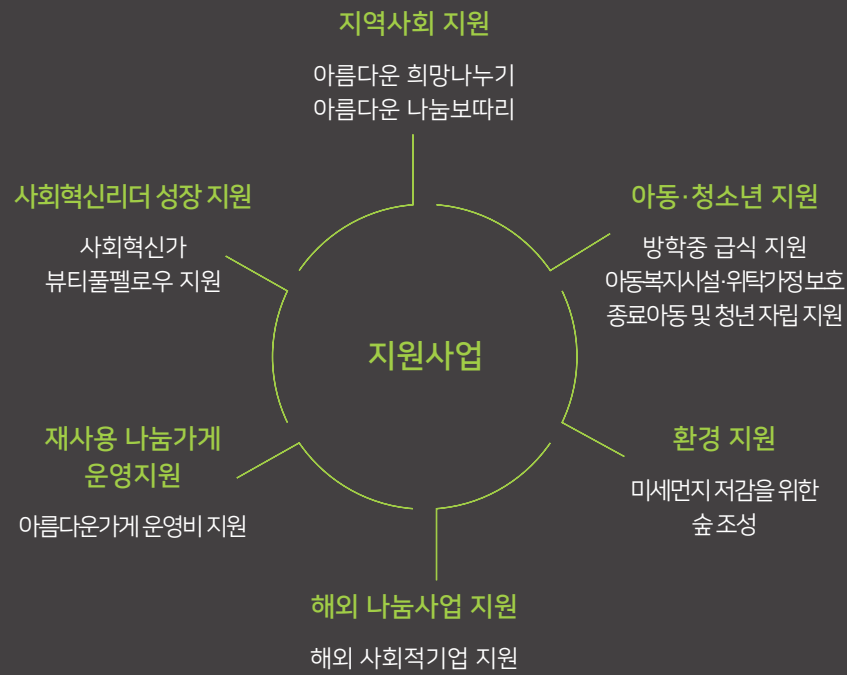
아름다운도서관

운영기간
2010년 ~ 2021년 3월

아름다운도서관은 네팔의 렉시미를 도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 네팔에서 감전사고로 심한 화상을 입고 한쪽 다리를 잃은 16세 소녀 렉시미를 만났고 그녀의 치료를 위한 모금에 나섰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은 모금액의 사용을 고민하던 차에, 아름다운가게는 콜로니 마을의 주민들과 힘을 합쳐 도서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네팔 주요 도시에 아름다운도서관을 건립하였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도서관 운영·관리, 교육 프로그램 등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름다운가게 나눔사업은 5대원칙인 공정성, 적합성, 효과성, 현장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투명한 재정운영과 다양한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재사용품 판매, 현금후원 등 시민의 참여로 발생하는 아름다운가게의 모든 수익활동이 투명하고 공정한 나눔사업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운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05

오늘을 있게 한, 한 발 앞서간 우리

재미난버스에서 움직이는가게까지
생방송 TV 아름다운가게
대한민국 최초 대안무역
아름다운 아파트 캠페인
아름다운 국제회의
100호점 개점을 위한 자선음악회
아름다운 캠페인들

오늘을 있게 한, 한 발 앞서간 우리

재사용 나눔가게, 대안무역, 업사이클링 사업 등 과거의 아름다운가게는 늘 한 발 앞서갔습니다. 국내의 소외된 이웃과 환경을 위해 아이템을 고민하고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더 많은 참여를 위해 온라인 마켓을 열고 버스를 개조한 아름다운가게를 몰고 전국을 다녔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여 그들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였고, 시민들이 직접 사고파는 장터를 열어 나누는 즐거움을 선사하였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이 모든 사업들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시민들과 기업들과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의 아름다운가게는 과거의 아름다운가게가 가졌던 이웃과 사회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관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운가게는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아름다움이 지속되길 희망합니다.



움직이는 가게에서 재미난 버스까지

아름다운가게 매장이 없는 곳에 시민들의 부름을 받아 전국 방방곡곡 찾아다니는 움직이는가게(이하 움가). 말그대로 움직이는 아름다운가게입니다. 움가는 아름다운가게만의 독특한 서비스로 아름다운가게의 비전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재미난 가게였습니다. 차량을 매장으로 개조하여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매장이 없는 아파트촌, 대학가, 병원, 학교, 축제, 박람회장을 비롯해 단체행사, 기업행사, 등 중소기업에서 대규모 바자회까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오픈 초기에는 주요 기업들이 트럭을 기부해주었습니다. 현대자동차(1호), 풀무원(2호), 두산중공업(3호), 사노파-신데라보(4호), 삼성 테스코 홈플러스(5호), 동양고속·건설(재미난버스)가 기부해준 움가로 자원재순환과 나눔의 행렬을 몰고 다녔습니다.

특히 재미난 버스의 기부 스토리는 기부의 한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었습니다. 재미난 버스는 29인승 우등고속버스입니다. 동양고속건설(고 최윤신 회장)에서 5년 된 자사 버스를 안양정비공장에서 6,000만 원을 들여 개조,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해주었습니다. 회사의 특징을 살려 나눔과 순환을 추구하는 아름다운가게의 활동에 참여하고자 생각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동 매장으로 버스는 재미난버스가 유일무이합니다.

전국방방곡곡을 누비며 아름다운가게를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지 등에 번쩍, 서에 번쩍 했던 움직이는 가게. 늘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아름다운가게 모습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생방송 TV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가게가 생방송으로 공중파로 방송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본 프로그램은 2004년 6월 아름다운 나눔과 순환 운동을 통해 자원의 재활용과 나눔을 통해 새로운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아름다운가게와 SBS가 함께 공동 기획하였습니다.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작은 나눔과 배려가 우리 이웃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나눔의 실천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1년 5개월 동안 방송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을 소개하는 <희망의 메신저>, 물건의 재활용을 통해 이웃을 돕는 기쁨과 보람을 직접 느끼는 <희망을 팝니다!>, 유명 스타 연예인, 스포츠 스타나 정치인, 기업 대표 등의 물품 경매를 통해 수익금을 기부하는 <아름다운 경매> 등 프로그램 속에 다양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코너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사람이 물건의 재사용과 나눔에 참여하였습니다. "아름다운가게의 소리 없는 생활 혁명을 널리 확산시키며 세상을 살아가는 정과 재활용의 소중함, 그리고 생활 속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작진의 소감을 통해 그 진정성이 우리 사회에 고스란히 전해졌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첫 대안무역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홍대점, 인터넷 쇼핑물 생생물에서 이국적 분위기의 물건들을 판매했습니다. 바로 대안무역 상품입니다. 아름다운가게는 대한민국 최초로 대안무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제3세계 빈민구제를 목적으로 시작한 대안무역사업은 아름다운가게가 출범하면서 이미 기획된 사업이었습니다. 아름다운가게 내 정책실, 공정무역 연구 및 사업기획을 기획하고 1년여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3년 9월부터 네팔과 방글라데시 등에서 생산된 수공예품 등의 상품을 매장에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유통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품을 변경, 2005년 하반기부터 일본의 대안무역 단체인 '네팔리 바자로'를 통해 네팔의 커피 농가와 연결되어 자료조사 및 샘플 연구를 거쳐 2005년 8월 네팔 친환경 커피 '히말라야의 선물'을 개발해 판매하였습니다.

이후 2006년 대안무역팀을 만들어 6월 네팔의 생두를 수입하여 판매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국제 대안무역회의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에서의 국내외 대안무역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축적된 경험과 성공적인 사례들을 공유하며 한국 대안무역운동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하였으며, 2009년 공정무역 브랜드 '아름다운커피'를 출범시키고 이후 2014년 아름다운커피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독립하였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공익상품팀을 신설하고 2014년에는 해외 공정무역단체와 함께 필리핀 천연 사랑수수를 정제하지 않은 원당 마스코바도를 개발하여 상품으로 출시, 다양한 제품군을 제조하여 공정무역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파트 캠페인

아름다운 아파트 캠페인은 2002년부터 현대 주거문화 대표공간인 아파트 속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의 기증 및 재사용, 주민들의 자원활동을 확산시키고자 기획된 캠페인입니다. 2004년 1월 I'PARK 분당을 1호점을 시작으로 수많은 아파트들과 자원재순환과 나눔을 위해 애써 왔습니다. 아파트 내 기증함을 설치하여 아파트 주민들로 하여금 상시적으로 물품을 기부할 수 있게 하고, 주변의 아름다운가게와 연계하여 다양한 행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아파트마다 사는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특징이 다양각색이다보니, 아름다운아파트의 물건과 사람들은 그 아파트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아파트로 선정이 되면 그것을 알리는 현판을 달게되고 현판을 다는 기념식을 진행하며 해당 아파트의 축제날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아파트 캠페인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원재순환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최근까지도 서대문구와 공동 협약을 맺어 '아자아자 (아름다운 자원봉사, 아름다운 자원순환) 캠페인'을 진행하며 시민들과 물품기부와 자원봉사의 참여를 독려하며 탄소저감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 국제회의

2006년 10월 16일, 아름다운가게는 '재활용 자선가게의 사회적 역할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2006 재활용 자선가게 국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활용 자선가게를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 존슨에서 후원을 받아 전 세계 대표 기관들을 초청했습니다. 영국의 옥스팜, 미군의 구세군, 일본의 위21재팬이 참여했고, 각 기관의 활동 상황과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가게 국제회의는 아름다운가게가 국내 대표 재활용 자선가게로서 주도적으로 국내 재활용 문화를 논하고, 국내 새싹 재활용 자선가게에도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100호점 개점을 위한 자선음악회 개최

2009년 5월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아름다운가게 100호점 개점을 위한 마에스트로 정명훈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이 함께한 자선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약 3천여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모였고 음악회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아름다운가게 100호점 '개봉점'이 탄생하였습니다.

자선 음악회가 처음 기획된 건 2008년 2월이며, 약 1년을 걸쳐 기획하고 준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자선 음악회를 통해 매장을 개설하려고 한 배경에는 '아름다운가게의 주인은 시민이다'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실제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매장을 만들고, 그 결실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아름다운가게 운동철학인 그물코 정신이 깔려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선 음악회에 함께 했던 수많은 시민들은 100호 매장의 기부자입니다.

아름다운 이사 캠페인

이사 캠페인의 슬로건은 '이사는 새 집으로 현 물건은 아름다운가게'로 였습니다. 이사하면서 새 집에서 사용하기 애매했던 쓸만한 물건을 아름다운가게로 기부하는 시민들은 기부도 하고 어려운 이웃도 돕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더욱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이삿짐 센터들과의 협업을 이끌어 내었기 때문입니다.본 캠페인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사를 계획하는 고객들 자원순환을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결혼캠페인

아름다운 결혼 캠페인은 한국 사회 결혼문화를 되새겨 보며, 소비가 중심이 되는 결혼 문화 속 나눔의 방식을 찾아가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하였습니다. 2006년, '아름다운 나눔 커플, 우리 둘 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를 생각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결혼 정보회사와 결혼박람회 에이전시와 함께 기획, 웨딩박람회 내 홍보부스를 운영해 예비 부부를 대상으로 캠페인 홍보 및 나눔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후 2011년에는 듀오웨드(현, 듀오)와 협약을 맺고 '뷰티풀 웨딩 캠페인'을 진행, 예비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전 사용하던 물건을 기부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본 캠페인을 통해 아름다운가게는 개인의 행복한 순간을 나만의 것이 아닌 이웃들과 함께하는 순간으로 만들었을 때 더 큰 기쁨이 찾아올 수 있음을 시민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마라톤 캠페인

아름다운 마라톤 캠페인은 2004년 시작된 친환경적인 환경 마라톤으로 체온유지 비닐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집안에서 입지 않는 옷으로 체온유지하면서 마라톤 출발하기 직전에 입고 있던 옷을 기증하는 캠페인입니다. 마라톤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가게도 홍보하며 물품도 기부받는 일석이조의 캠페인이었습니다. 그 중 제주 국제마라톤캠페인은 국내 본격 기부 마라톤 대회로 2008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마라톤대회와 기부와 나눔의 장터가 동시에 열리는 대회였으며 참가비의 절반을 국내외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공작단

아름다운공작단은 아름다운가게가 만든 신개념의 대학생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2007년 론칭하여 2012년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그 당시 젊은 세대의 진취성과 역동성을 아우르며 자원순환과 나눔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공작단은 나눔, 환경, 봉사 등과 관련된 공익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며 나눔과 순환의 가치를 실현하고 널리 전파하였습니다. 특별히 성년의 날을 위해 매년 기획된 캠페인을 통해 기존의 소비 향락적인 성년의 날 문화에서 벗어나 기부를 통한 나눔을 실천하도록 하여 기념일의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행사의 수익금은 아름다운가게 나눔사업에 기부하여 그 의미를 더욱 더했습니다.





06

아름다운 문화

—
아름다운 복지
아름다운 이름

활동가들의 행복과 성장

아름다운 복지

아름다운가게는 활동가들의 행복하게 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특별장기유급휴가

일정기간 근속한 활동가에게 재충전을 위해 특별 장기휴가 부여합니다. 5년 근속자 1개월, 10년 근속자는 최대 3개월까지 안식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쉬없이 달려온 시간들에 대한 휴식을 보장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일만큼 소중한 것이 가정입니다. 자녀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자유로운 육아휴직을 지원합니다. 특별히 남성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을 유급휴가로 지원합니다. 남성 활동가 대부분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녀 출산 지원

임신 기간중 예비엄마와 아이를 위해 법으로 보장된 모성보호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활동가는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활동가들의 출퇴근 시간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조금더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조사 지원

나와 가족이 기쁘고 슬픈일을 겪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합니다. 경조사 휴가 및 경조금을 지급하며, 상조회 협약을 통한 상조서비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가 당사자 생일 당월 상품권 지급합니다.

그 밖에

활동가들의 건강한 근무를 위해 직장인 건강검진, 생애주기와 근속 및 연령을 기준으로 종합검진 지원하며,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 한해 1학기당 60만원의 학비를 지원(8회 한도) 합니다.

활동가로서의 성장을 위해

자기성장 도서비 지원

활동가들의 성장을 돕기위해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지원합니다. 1년에 5만원 한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도서관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끊임없는 자기 성장을 돕기 위해 법정 필수 교육을 온라인을 통해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더십교육, 리더십 양성과정 등을 기획하여 활동가들이 즐겁게 자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심리상담 지원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점에 있는 매니저들의 어려움과 마음을 돌보기 위해 전문 상담사와 1:1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당 최대 연 3회 가능하며 사무처 활동가들까지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아름다운가게만의 일터 문화를 위해

신입 활동가들을 위한 새롭교실

비영리단체에 익숙한 혹은 익숙하지 않은 신입 활동가들을 위한 신입 간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 역사부터 현장 체험, 선배 간사와의 만남들의 시간을 통해 조직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직급별, 연차별 교육

보직의 이동/변경을 하거나 혹은 일정한 직위에 있는 활동가가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역량 향상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지원

전국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합니다. 공통의 활동을 통해 아름다운가게 구성원간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하여 조직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학습, 체육, 예술, 문화, 취미 등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정보를 나누면서 함께 활동하는 자발적 모임으로 구성원간의 유대감을 쌓습니다.



우리가 만든 아름다운 이름의 정의

그물코

씨줄과 날줄로 빈틈없이 서로 엮인 그물코로 우리는 모두 서로의 삶에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아름다운가게를 설립하였습니다.

되살림

물건의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의미로 내게 필요없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자연을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하는 아름다운가게 운동철학입니다.

벼리방

아름다운가게의 주요 공지사항과 각 부서, 지역본부, 활동가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사내 인트라넷입니다.

벼리

아름다운가게 활동가들을 지칭합니다. 원뜻은 그물의 위쪽에 코를 꿰어 잡아당길 수 있게 한 줄로서 물건의 나눔과 순환을 위한 땀과 노고의 소중함과 더불어 마음과 우정을 나누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공육

공육(共育)은 아름다운가게 활동가로서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향상시켜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을 통해 조직과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여 사회의 공익적 변화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름다운 감사장

버려지는 소재를 활용하여 만든 아름다운가게 감사장은 주는 이도 받는 이도 환경과 이웃을 생각하게하는 아름다운가게만의 특성을 살려 제작됩니다.

그림담집

아름다운가게 사무처라고 불리는 첫 사무실. 안국동 안동교회 아래쪽 예전 덕성여고 도서관 건물로 지상 3층, 지하1층의 붉은 벽돌색 건물 주변의 담을 유양옥 화백님이 직접 재능기부로 그림을 그려주신 이후에 그림담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구매천사

구매천사는 아름다운가게에서 물건의 구매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를 실천하는 착한 소비자들입니다.

하늘정원

아름다운가게 안국동 그림담집의 옥상 정원으로 풀무원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휴식공간입니다. 삭막한 도시의 콘크리트에서 잠깐이나마 바람을 맞고, 안국동 일대의 멋진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하늘정원은 버려지는 소재를 이용해 만든 구조물을 곳곳에 숨겨놓았습니다.

활동천사

자원봉사를 넘어 자신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활동으로 자원활동을 실천하는 아름다운가게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분들입니다.

공익상품

사회적기업, 친환경단체, 장애인재활단체 등에서 정성껏 만든 제품을 의미합니다. 공익상품의 소비는 이를 만드는 공익상품 생산단체들이 목적하는 사회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부천사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부해 주시는 물품기부자들로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자원재순환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